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2천년 고도 가야 불교의 성지

(사)가야불교 문화원 김해불교사암연합회

이사장 (연합회 회장) **만제 혜수**
이 사 **정광 각명 우진 태설**
사무국장 **범해**

나눔급식 후원계좌: 새마을금고 9002 1666 9015 6
(예금주 : 가야불교문화원)

경남 김해시 흥동로 179
전화 055)322-0088





사찰을 귀히 여기는 절…

길상사 삼계선원

간화선 참선 근본도량

민생회복 만사여의 3년결사기도 상시접수

기도시간 : 새벽 5시 /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녁 6시

부설
· 불교대학 · 성현덕회 · 참선반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삼계선원
주소 경남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 대명빌딩 201호(삼계동)
전화 055)333-8202 팩스 055)333-8203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

회 장 이상연 경남경영자총연합회장(㈜경한코리아회장)
수석부회장 조보현 경남예총 회장
감 사 권정근 세경씨엔디 회장 이장균 창원시청공무원불자회장
부 회 장 김정기 심산서울병원 이사장
류병현 법무부범죄예방창원협의회장(동구기업 대표)
김환래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장(경남모터스㈜ 대표)
박재근 ㈔이노비즈협회장(㈜ 유창산공 대표)
최규식 두동도시개발 대표 김태종 대신엔지니어링 대표
박금숙 경남도립미술관장 김일래 통영국제음악제 대표
김 철 경상남도경찰청 불자회장 진정혜 금강자비회 이사장
김종석 성주사 신도회 부회장(청보건축사 대표)
진효규 관음사 신도회장(유창기계 대표)
김명희 정인사 신도회장 강성희 우곡사 신도회장
우순기 정암사 신도회장(진해문화원장) 김금비 길상사 신도회장
김연화 진불선원 신도회장 이동희 대광사 신도회장
이명은 불곡사 관음회장 김명련 반야사 관음회장



대한불교조계종

통영 연 화 사

주 지 **도 법**

사부대중 일동

경상남도 통영시 진남5길 36
전화 055-645-6683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수국(守國)사찰

남해 용문사

주 지 승 원

신 도 회 장 송 행 열
거사림회 회장 박 영 남
지장회 회장 조명각선

신 도 일 동



주소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길 166-1 호구산 용문사
전화 055)862-4425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회 장	법안(성주사)	
수석부회장	광우(정법사)	
상임고문	지태(봉원사)	원행(정인사)
	도홍(불곡사)	정인(불지사)
	원정(성흥사)	상운(정암사)
	황봉(관음사/용마산)	춘광(삼학사)
	화산(원흥사)	
고 문	운남(봉림사)	월봉(석봉암)
	호정(세심사)	석봉(백운사)
	성일(수선정사)	구하(관음정사)
부 회 장	지암(송림사)	석산(우곡사)
	성욱(영진사)	원문(금룡사)
	월서(길상사)	무성(구룡사
	청호(관음사/천주산)	
감 사	무아(진불선원)	해암(용천사)
	혜명(반야사)	
사무총장	성욱(영진사)	포교부장 선묵(관음사/장복산)
총무부장	자경(대광사)	문화부장 해륜(광산사)
재무부장	선해(미타사)	복지부장 성우(천웅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상가 14층
H.P 010-5246-2112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내 원 암

주 지 **도 성**

사부대중 일동

50418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422(구천리2)
전화 055-352-1155



대한불교 원효종

벽 선 암

주 지 **홍법혜진**

벽산암 신도회

사단법인 야단법석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36-6
HP) 010-5101-0093

대한불교조계종

동대산 성 불 사

회 주 **만 상**
주 지 **혜 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普光石材 X 아두망 à deux mains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 이래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문화를 계승하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이다.
본 사의 발자취를 기록한 우리 돌 문화공간, 아두망은 이색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석공예와 전통 돌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 기대한다

프랑스어로 "두 손으로"라는 뜻의 카페 아두망(à deux mains)은 최고의 맛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맛을 손수 제공하고자 한 모토를 담은 동시에, 두 손에 권 수공구만으로 단단하고 무거운 돌을 우직하게 다듬어 낸 우리 전통석공예의 영혼을 함의하고 있다.

(주)보광석재 주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화 | 054-955-8888
카페 아두망 주소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9